

전남도 “여름밤 감성 자극하는 ‘별밤 여행지’ 놀러오세요”

목포유달유원지
 해상케이블카 통해 바다전경 만끽
나주빛가람전망대
 모노레일 타며 음악분수·도시 관광
광양느랭이골
 편백나무 피톤치드 가득한 산림욕

전라남도는 7월 한여름 밤의 감성을 자극하는 별밤 여행지로 목포 유달유원지, 나주 빛가람전망대, 광양느랭이골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목포 유달유원지는 유달산의 바위에 어울린 조명과 학의 모습을 형상화한 목포대교, 고하도와 다도해의 비경이 바닷속에 피어나 환상의 별빛을 연출한다.

낮에는 해안 따라 설치된 고하도 용머리 데크길과 고하도 전망대를 거닐고, 야간에는 별빛야경을 보며 무지개 해안도로를 따라 조명이 예쁜 감성주점, 카페 등에서 밤바다를 감상하며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국내 최장 목포 해상케이블카에선 통유리로 섬, 바다, 유달산, 목포 시내를 광활하게 조망하면서 발밑에 펼쳐



나주 빛가람전망대

/전남도

진 푸르른 바닷물결의 오싹함에 여름날의 무더위를 잠시나마 떨칠 수 있다.

나주 혁신도시 도심 한가운데 호수에 우뚝 솟은 빛가람 전망대는 한국전력 등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빛가람 호수공원이 어우러져 화려한 야경을 자랑한다. 버스킹 공연 등으로 지역민과 연인의 나들이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도시홍보관과 이주민기념관을 통해 나주 혁신도시의 변천사 등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노레일을 탑승해 빛가람 호수공원의 음악분수와 전

체 도시를 조망할 수 있다.

주변 전남산림자원연구소의 메타세쿼이아길, 다도면의 도래한옥마을 등 명소 방문은 물론 나주읍성 내 금성관, 나주향교 등을 둘러보며 고풍한 그릇 먹고 예술이 넘치는 카페 등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

광양느랭이골은 백운산 자락에 있는 편백나무의 피톤치드와 40여 개 글램핑장에서 글램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꽃이 만발한 산책길을 따라 산림욕과 야간 별빛축제를 즐기는 휴식처다.

느랭이골 불빛축제는 저녁 9시까지

영화 신데렐라의 호박마차와 울창한 숲나무의 조명, 아기자기한 동식물, LED 조명터널 등 불빛 향연이 환황하게 펼쳐져 연인과 가족단위 관광객의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다.

주변에 와인동굴과 해질녘 풍경이 아름다운 구봉산 전망대가 있고, 숯불고기를 먹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안심 관광 트렌드에 맞게 관광지 및 숙박업소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 조치로 청정전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부산시

송정 등 7개 해수욕장 개장

해운대·송정·광안리·다대포·송도·일광·임랑 등 부산 7개 해수욕장이 1일 완전히 개장했다. 8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개월 동안 개장한다.

개장과 함께 해수욕장 방역대책도 강화된다.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해수욕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은 5일부터 8명까지로 제한되고 나머지 5개 해수욕장은 1일부터 사적모임 8명 이하가 적용된다. 또한 해수욕장에서는 방문 이력을 기록하고, 체온측정도 실시한다. 파라솔 거리두기는 2m, 시설물 방역 강화 등은 해수욕장별로 진행한다. 특히 해수욕장 내 야간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최규춘 기자 ch9720@

강원경찰청

피서철 교통안전관리 강화

강원경찰청은 7주간 피서철 교통관리기간(7.2~8.22)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강원도 피서길 만들기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국내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도내 유입 차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을 내다 봤다.

지난해 피서철(7~8월)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은 월 평균 45만1000대로 연간 평균 통행량 39만8000대와 비교해 13.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셋째 주 주말에는 평소 대비 67.3% 늘어난 66만6000대가 통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하루 최대 569명의 경찰관과 순찰차 등 221대의 장비를 동원해 소통과 안전 위주로 피서철 교통관리에 나선 방침이다.

고속도로와 국도 혼잡 예상 구간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고속도로 지정체 시 도로 전광판과 우회 안내 입간판을 활용해 인근 국도로 우회시키는 등 혼잡을 최대한 완화시킬 계획이다.

/최규춘 기자

보성군, 전국 최초 코로나 백신접종 인센티브 지급

1인당 보성사랑 상품권 2만원 지급
 읍·면사무소, 보건소 등서 수령 가능

보성군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지급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1인당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백신 접종률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급되는 이번 인센티브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현재 보성군 1차 접종 완료율은 52.5%로 전남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차 접종 완료자는 8300여 명으로



군 관계자가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전체 20.6%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은 2차까지 완료해야 하며, 안센은 1차

접종 후 인센티브 수령이 가능하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상황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마을 방문을 통해 현장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 접종완료자는 신분증과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모바일 증명서(cov쿠브)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타 지역에서 접종한 경우라도 7월 1일 기준 보성군민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백신

에 대해 불안감이 높을 때부터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솔선해 준 군민이 있었기에 지금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약소한 금액이지만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군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더불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준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접종률 80%를 목표로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3분기 일반 성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보성(전남)=문병환 기자 m8527188@

광주시, 광주형 비건김치 레시피 만든다

빛고을김장대전서 공개

광주광역시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빛고을김장대전에 사용할 광주만의 비건김치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1일(사)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비건 김치 품평회를 개최했다.

한국채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채식 인구는 150만명으로 2008년 15만명에서 10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건강, 환경, 동물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건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김치업체의 비건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밀을

사용한 광주만의 비건 김치 레시피를 개발해왔으며, 올해 빛고을김장대전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품평회는 비건 김치 주 소비층인 비건 회원들을 통해 맛과 품질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비건 회원들은 우리밀과 토마토를 사용한 비건 김치의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칭찬하며, 감칠맛이 뛰어나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광주만의 비건 김치 레시피를 개발해 빛고을김장대전 참여 김치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지역 김치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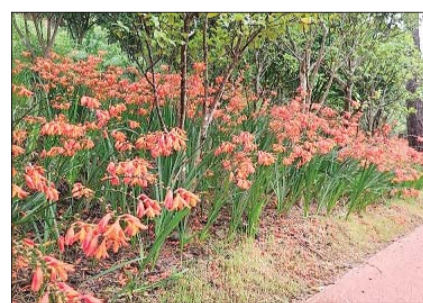
신안군, 9일 ‘크로코스미아 꽃 축제’ 개최

신안군은 압해읍 송공리에 위치한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크로코스미아 꽃 축제’를 2021년 7월 9일부터 8월 1일까지 개최한다.

축제가 열리는 천사섬 분재공원에는 1만7천본의 애기동백숲 3.5ha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곳에 관람로를 따라 100만본의 크로코스미아(애기범부채) 3,000만송이가 청초한 모습으로 다보록다보록(탐스럽게 소복한 모양) 피어 오르고 있다.

“청초”여전히 당신을 기다립니다”라는 아름다운 꽃말을 가진 크로코스미아(애기범부채)는 붓꽃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화로 7~8월에 긴타원형의 주홍색 꽃이 화려한 여름꽃으로서 방문객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안군에서는 매년 천사섬 분재공원에 크로코스미아(애기범부



천사섬 분재공원에 핀 크로코스미아 /신안군

채)를 더 심고 가꾸어 국내 최대의 크로코스미아(애기범부채)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5천만평의 바다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겨울에는 하얀 눈 속에 피어나는 애기동백,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피어난 3000만송이 크로코스미아꽃을 감상하며 더위를 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곡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곡성군이 청년 세대의 결혼 장려를 위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 중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내에 1년 이상,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축하금 신청일에는 부부 2명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 가능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며 7월 1일부터 곡성군 미래혁신과 인구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곡성(전남)=김태수 기자